

부루노, 바우흐(五)

現代 世界 唯一民族 哲學者

安浩相

精神生과 肉體生이 人生의 自體에선 업지 못할 두 契機들이다. 그러나 肉體生은 手段이요, 精神生은 目的이다. 人生이 人生이 되며, 全人生을 代表하는것은 肉體生이 아니라 그 精神生이라고 「바우흐」는 말하였다. 이것은 다음 事實이 證明할것이다. 人類가 생긴뒤로 億萬人生이 나고 죽엇지만, 史上에 이름을 남겨둔者 몇 사람이 못된다. 史上에 이름을 남겨둔 이 몇 사람들은 쓰기 조코 부르기 조흔 이름을 가져서 冊에 쓰이고 입에 불이게 되는가? 혹은 健康한 身體와 美的 口格을 所有한 才문인가? 아니다! 그들의 이름이 史上에 남겨 두이며 萬人에게 불이게 됨은 다른 남들 보담 肉體生이 다른 才문이 아니라 남다른 精神生을 가졌든 才문이다. 그림으로 形體잇는 肉體生은 人生을 잘해야 百年이지만 形體업는 精神生은 人生을 잘하면 千萬年을 살게한다.

人生에게 肉體生보담 精神生이 貴重타는것은 精神잇는者다 그러타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셔한 사람들은 여기 對해서 疑心과 反對한다. 웨그러냐 하면 그들의 생각에 精神은 肉體의 產生이요, 肉體는 精神을 낫는(產出)者인줄밧는 才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主張의 根據와 說明은 너머나 薄弱하고 淺薄타고 바우흐는 말하였다. 그들의 主張이 全혀 成立되지 못할 理由들을 여기서 다들수가 업고 다못 한 가지 理由만들고져 한다. 이미 말한바 肉體生은 人生의 精神에 업지 못할 條件이다. 그러나 肉體生이 精神生을 만드러 낸다고는 할 수 업는 것은 다음 事實이 證明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감에 밥이 업지 못할 條件이다. 그러타고 밥이 사람을 만드러 낸다고 할 것인가? 아니다! 밥이 사람을 아니라 사람이 밥을 만드러 낸다 假使肉體가 精神을 만드러 내여 밥이 사람을 만드러 낸다 하자. 그러타고 우리는 肉體가 精神보담 밥이 사람보담 더 貴하며 價値잇다고 할 것인가? 만일 그러타 할진대는 飢寒을 못 이겨서 不共戴天之口에게 맘을 구피(屈心)서 옷을 빌며 쏘 自口을 채울 여고 朱

자의 손에 밥을 썰어슴이 다 正當한일이며 착한 짓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짓은 사람으로 선할 짓이 아닌 것은 누구 던지 다 아는 바이다. 왜그런가? 怨讎에 빌은 옷과 赤子에 썰앗는 밥이 입고 먹는者의 肉體를 害되게 하는 썰문인가? 아니다! 이가티 빌은 옷과 썰아슴 밥이 아무리 肉體를 利케하며 살게 하지만, 人生의 精神을 害케하며 죽이는 썰문이다. 人生에겐 오즉 산(生)다는 그것이 아니라 意味있게 사는 그것이 貴한 法이다. 다시 말하면 「生의存在」가 아니라 「生의意味」가 貴하며 價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이 問題삼아 觀察코져 하는 것은 「生의 存在가 아니라 도리어 生의 意味」라고(Nicht das semdes Lebens, sondern der Sinn des Lebens)라고 바우흐는 말하얏다.(참과 價値와 現實, 四九二頁)

人生의 參된 目的은 生의 存在가 아니라 生의 意味라고 하얏다. 다시 말하면 人生은 生썰문이 아니라 生의意味썰문에 사라간다. 그러므로 人生哲學은 「人生이 어쨌케 잇는가?」가 아니라 「人生이 어쨌서 잇는가?」를 問題삼는다. 쏘만 아니라 人生의 意味가 解決되는데서 비로소 人生의 存在가 解決될 수 잇다. 그러면 바우흐가 「人生의 存在」와 「人生의 意味」를 區別할적에는 저와 가튼 두 問題가 이러날 것이다. 一, 人生의 存在와 人生의 意味의 論理的 區別과 關係는 어쨌한가? 二, 人生의 意味는 그 무엇일가? 이 두 問題를 解決코져함이 바우흐의 實踐哲學의 重大한 課題이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한 그의 觀察을 여기선 紹介치안코 다못 이 問題에 關係된 바우흐의 □書몇만 들고져 한다. 1, 生의 意味(참과 價値와 現實, 四八九-五三〇頁) 2, 教育學의 哲學的 基礎, 3, 文化와 民族. (웃)